

가 있드란 말이여. 금께 거그를 표  
지를 해 놓고 에 일어나서 그 차리  
에다 아 병을 성을 쌓더니 았문어졌  
다. 그렇게 부르지요. 눈으로 해서 자

리를 잡았다. 설성 눈으로 해서 자  
리를 잡았다. 금께 설성이라고 지금  
도 불리우는데 병인가면 지금 성터  
가 남아 있습니다.

향토 문화

名 勝 觀 光

編 輯 部

■ 시목(柿木) 해수욕장(海水浴場)

島嶼名	位 置	觀光 資源		資源의 特性 및 名稱
		區 分	個 所	
都草導	全南 新安郡 都草面	기 암	1	문바위
		해수욕장	1	4.0km
		식생	2	해송림, 지생란
		무인도	9	명예섬, 사내거리섬, 할미섬, 형제섬, 종달여

도초면(都草面) 오류리 엄목(俺木)마을에 있는 시목(柿木) 해수 욕장은 그 규모나 자연적 여건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곳이다. 이 해수 욕장은 3면이 산과 바다로 마치 병풍을 쳐 놓은듯한 포근한 지형에 백사장이 4km가 깔려 있고, 물이 맑아 해수욕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. 또한 해안 2km에 걸쳐 사방 사업을 설성 해 놓고 있으며, 바다 속의 경사도가 완만하여 위험도가 없다. 타원형의 길고 넓은 백사장에는 군데

군데 모래성이 쌓아진 것이 특징이며, 이곳에서 서서보면 산과 바다 풍경이 마치 한폭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 같은 환상에 휘말려 들게 한다. 특히 해수 욕장 바로 앞에는 농간암(弄奸岩)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날씨가 흐리면 바위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문자 그대로 농간하는 신기한 현상을 볼 수가 있다.